

# 살림교회 주보

+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영의 정원사들입니다! +

##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 공동예배 순서

시간 / 2026년 6월 14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김지호 목사

### 개회 예전

#### 예배의 부름 / 예배 인도자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립니다.”(시116:7~9)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선 듯 합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 짙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하루의 밀도는 점점 성글기 시작합니다. 긴 하루의 성근 시간이 오히려 고요한 여백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그 성근 자리를 하늘 바람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고단한 한 주간의 피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성삼위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 새찬송가35장 큰 영화로신 주 / 다함께

\*공동기도 / 다함께

사랑의 주 하나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눈부실 만큼 따갑습니다. 산하의 나무들은 여름의 빛과 열을 받아들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씩 더위로 지쳐갈 때입니다. 주님, 이번 여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늘 바람이 춤추는 공간을 두게 하십시오. 근심 걱정 비우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 앞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는 어두운 감옥에서 투덜거리며 머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창조주의 그 형상과 닮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주님, 아래로, 아래로 흘러 존재의 폭을 넓혀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련하신 그 광활한 고요와 평화를 맛보게 하십시오. 그 광활함이 우리의

생명이 비롯되는 원천임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시작되게 하십시오. 하루의 일상을 쾌활하고 온유하게 살아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쾌활함과 온유함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송 / 새찬송가631장 우리 기도를 / 다함께

우 리 기 도 를 들 어 주 시 고  
 주 님 의 평 화 를 내 려 주 소 서 아 멘

Hear our prayer, O Lord 기도송

\*사죄기도 / 다함께

목사: 자비의 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우리 앞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 어두운 구석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그때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관계 맺기에 서툰입니다. 어떨 땐 위축되어 몸을 도사리고, 어떨 때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아래 깔려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같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듭기도 / (모든 생각과 감각을 침묵 안으로 거두어들이며) 다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미7:6)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주님의 말씀과 2천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

라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잘못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  
십시오. 그러므로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며 사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송 / 새찬송가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함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  
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 삼위 계영 광아 멘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hymn.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in Korean. The first system has the lyrics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 and the second system has '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 삼위 계영 광아 멘'.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chords and moving lines in both hands.

\*평화의 인사 / 다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

(다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송 / 새찬송가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다함께

## 말씀 예전

설교전기도 / 다함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오이다.”(사119::105) 참된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는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행간에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말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  
시어, 세상의 온갖 소음으로 혼미해지고 욕망으로 혼탁해진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십시오. 긴장하여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 창세기18:9~15(신약24쪽) / 장명선 교우

응답송 / 새찬송643장 아멘 / 다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word 'Amen'.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아 멘 아 멘 아 멘'.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chords and moving lines in both hands.

성시교독 / 시편116:1~2,12~19(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함께

인)나의호소 나의간구 우리주님 들으시네 나는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랑하네  
회)우리주님 귀를열어 나의간구 들으시니 내가사는 한평생을 기도하며 살으리라  
인)주님께서 베풀어준 많고많은 은혜들을 무엇으로 제가모두 갚을수가 있겠는가  
회)구원의잔 높이들고 주님이름 부릅니다 우리주께 맹세한것 틀림없이 지키리라  
인)하나님께 충성바친 성도들이 죽는다면 그죽음은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긴다네  
회)나의몸과 나의영혼 주님에게 속했다네 주님께서 은총내려 나의결박 푸신다네  
인)감사찬양 드리면서 주님이름 부르리라 마음다해 기도하며 정성다해 찬양하리  
회)제가주께 맹세한것 모두이행 할것이며 만백성들 보는데서 정직하게 지키리라  
인)우리주님 거니시는 성전의뜰 그안에서  
회)내가주께 맹세한것 지키리라 할렐루야

제2독서 / 로마서5:1~8(신약296쪽) / 장명선 교우

\*복음서 / 마태복음9:35~10:8(신약17쪽) / 장명선 교우

\*응답송 / 새찬송가637장 / 다함께



설교 / 달라지는 웃음 / 김지호 목사

찬송 / 새찬송가399장 어린 양들이 두려워 말아라 / 다함께

## 봉헌과 친교 예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봉헌 / 주기도송(찬송 중 봉헌자 : 장명선 교우)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룩거르신  
사 주님 나라 인하시  
고 뜻 이 이루어지 이 - 다 오리도  
을 먹이시 고 우리 들 의 크 죄 다 요 사  
하 읍 시 고 또 시험 에 들 게 마  
시고 악에 서 구원 하 소서 대 개 주의  
나 - 라 주의 권 - 세 주의 영 - 광 엿 뵈 히 여  
원 히 아 - 멘 아 - 멘

중보기도 / 목사

교회소식 알림 / 인도자

파송 예전

\*마침찬송 / 새찬송가639장 주 함께 하소서 / 다함께

보통으로 G (템 0.24) 박정환, 1963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축도송

\*위탁의 말씀 / 김지호 목사

성령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떠받치는 “새벽 여명”과 “가을비, 봄비”를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애씀과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에 터 잡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상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내적인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 테오리아

“당신의 존재가 커질수록,  
더 높은 의미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수용성도 커진다.  
당신의 존재가 줄어들면,  
오래된 의미들이 되 돌아온다.”

Maurice Nicoll, <The Heart of centering Prayer>에서 재인용

“일상을 가꾸는 영성” | 대한예수교장로회 **살림교회**

살림영성센터

1038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83(대화동) 성은빌딩4층  
T.031-912-4930 • 카페 <http://cafe.daum.net/Reviving-church>

• 담임목사 | 김지호 010 - 5101 - 4935

# 살림교회소식

1. 주님과 함께 하는 영적 여정, 살림교회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 6월 일정:  
6/14 공동체 마음 나눔    6/21 공동 회의    6/28 공동체 성경 나눔
3. 6월 예배위원: 6/7 장지영 교우    6/14 장명선 교우  
6/21 이하영 교우    6/28 윤경근 교우
4. 오늘 공동식사는 윤영희, 이선순, 김소영 교우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5. 6월 중보기도
  - 1) 교회 공동체 각각의 지체들의 건강과 그 연합을 위하여
  - 2) 이란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중동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 다음 주일(6/21) 예배위원: 이하영 교우    다음 공동식사 담당:

▶ 지난 주일(6/1) 헌금 영수기(6/1일 입금 분까지)

십일조/월정헌금: 김지호/김소영, 김범석/송지은(6/7), 김성욱/윤영희(6/1), 김세림, 박현주(6/4), 장인자(6/7)

주일헌금: 김윤주, 김지호, 유지은(6/7), 이선순, 장명선(6/3,7), 정지현

감사헌금: 김소영, 김윤주(세례), 신성혜(6/1), 윤경자(6/7),

## ■ 예배 및 모임 안내 ■

- 주일 공동 예배 | 주일 오전 11시    ■ 수요성서모임 | 수요일 저녁 7:00~9:30
- 주일 오후 모임 | 둘째 주일: 공동체 마음 나눔, 넷째 주일: 공동체 성경 나눔

## ■ 살림영성센터 과정 안내 ■

❖ 향심기도(Centering Prayer):	월요모임 오후 8:00~9:30(교회) 화요모임 오후 8:30~9:30(ZOOM) 목요모임 오후 8:00~9:30(ZOOM) ※ ZOOM ID: 407 085 2716(비번 없음)
❖ 춤테라피:	2월 4일 개강
❖ 집단상담을 통한 자기성장과정:	